SN 논술 자료

국민대 논술 기출

국민대학교 · 인문계열

차례

기출

1. 2026학년도 논술고사 · 해설

대학 공개 기출·모의 논술 자료를 전사·검수하여 SN 수능형 양식으로 다시 조판한 학습용 자료입니다. 원문 인쇄 오류는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국어 영역

국민대

출처: 2027학년도 국민대학교 논술가이드북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5점]

(가)

내가 쓴 장편 소설 『칼의 노래』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입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해서 남해안으로 내려왔더니 그 두 달 전에 원균의 함대가 칠천량에서 대패해서 조선 수군은 전멸하고 남해에서 조선 수군의 깨진 배와 송장이 떠돌아다니고 그 쓰레기로 덮인 바다에 봄이 오는 풍경을 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에서 버려진 섬이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빈 섬이란 뜻으로, 거기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것을 "꽃은 피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고민 고민 끝에 "꽃이 피었다."라고 고쳐 놨어요. 그러면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언어입니다.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의 정서를 섞어 넣은 것이죠. ㉠"꽃이 피었다."는 사실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이고 ㉡"꽃은 피었다."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의 문장과 소설은 몽매해집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의미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구별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문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김훈, 「회상」

(나)

"그런 일은 (㉢_____.)" 내가 고민을 말하자마자, 함께 차를 마시던 선배가 한 말이었다. 선배는 입꼬리를 약간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고 나를 쳐다보았다. 다정하고도 다부진 말투였다. 선배를 따라 나도 입꼬리를 올리고 빙그레 웃었다.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선배가 "건성으로 해도 돼."라고 말해 준 것이 아니었다. 안 그러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 선배는 "(㉢_____.)"(이)라고 말했다. 나는 "해야 돼."라는 말의 단호한 어감이 좋았다. 그것은 성실함의 반대말인 '건성'을 지지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해야 돼. 성실해야 돼. 참아야 돼. 독서를 해야 돼. 모두가 옳다고만 믿어 온 것들과 함께해 온 "해야 돼."라는 말. 공부를 해도 돼. 성실해도 돼. 참아도 돼. 독서를 해도 돼. 이런 말들은 거의 들어 본 적도 해 본 적도 없다. "해야 돼."는 번번이 지당한 단어와 결합하여 일말의 선택권도 허락이 안 되는 숨통 막히는 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옳고 좋은 것을 강압적으로 추락시켜 버린 나쁜 서술어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당한 것들이 지긋지긋함과 연루되게 만든 것이다. 그 강요의 말이 오늘은 차 한 잔을 놓고 마주한 오후에, 성실의 반대말과 함께 사용되었다. 오늘은 강요가 아니라, 강요의 반대 방향으로 숨통이 생기는 걸 느꼈다. "해야 돼."라는 말이 강압이 아니라 해방감이 되었던, 최초의 경험이었다.

– 김소연, 「최초의 경험」

(1) (가)와 (나)를 <보기>와 같이 요약할 때, ⓐ와 ⓑ에 들어갈 단어를 각각 (가)와 (나)에서 찾아 쓰시오. [3.2점]

< 보 기 >

두 글은 언어의 미세한 차이가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와 감정을 바꾼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는 (ⓐ)와/과 정서를 구분하는 언어의 힘을, (나)는 (ⓑ)을/를 해방으로 바꾸는 언어의 전환을 통해 말의 선택이 곧 사유의 방식임을 드러낸다.

(2) <보기>를 활용하여 ㉠과 ㉡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4.2점]

< 보 기 >

'격 조사'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보조사'는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3)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나)에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쓰시오. [4.1점]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0점]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중략)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A>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은/는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꾀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듯이 큰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太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로 삼는다.

*장기: 경상북도 포항 지역의 지명.

– 정약용, 「수오재기」

(1) ㉠에 들어갈 말을 <A>에서 찾아 4음절로 쓰시오. [4.2점]

(2) ㉡에서 정약용이 추구했던 바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한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4.8점]

< 보 기 >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은 상승한다.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 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

한편 (㉡) 연금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 저축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 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 수당형, 최저 소득 보장형, 최저 보장 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_____.) 최저 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 비용이 들 수 있고,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최저 보장 연금형은 수령 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 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 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에 가깝지만,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 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의 성격도 갖고 있다.

(1) ㉠과 ㉡에 각각 들어갈 2음절의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2) 윗글의 논지에 비추어 ㉢에 들어갈 내용을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4.5점]

(3) ㉣과 ㉤에 각각 들어갈 연금의 유형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3.0점]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0점]

(가)

날마다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의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해야 할까? 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른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개발국의 인권이나 환경 보호에 관심이 커지면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란 인간, 동물,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소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흔히 소비를 '시장 경제 시대의 투표'라고 표현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을 사거나 사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을/를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가난한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생활이 달라져야 의식이 바뀌고, 소비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한다.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는 말만으로 변하지 않는다. 윤리적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기업, 지구와 인류의 공생을 위한 첫걸음이다. 어떻게 살[買]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함께 살[生] 것인가의 다른 말이다.

(나)

어느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작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는 선택을 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대 효용 이론이 있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특정 선택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효용인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전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확실성의 효과, 손실 회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보유 효과 등이 있다.

전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대 효용 말고도 선택지의 확실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00%의 확률로 90만원을 받는 선택지와 10%의 확률로 1,000만원을 받는 선택지가 있다면, 두 선택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기댓값은 받을 돈에 확률을 곱하면 되므로 각각 90만원과 100만원이다. 받는 돈의 양과 그로부터 얻는 효용이 비례한다면,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첫 번째 선택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확실성의 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손실 회피와 관련이 있다. 손실 회피란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손실보다 손실의 정도가 작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의 확실성에 대한 선호는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냐 손실과 관련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반사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결정을 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위험 선호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복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더 잘 기억하는데, 이를 고립 효과라고 한다. 고립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모든 선택지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공통으로 제시된 조건은 크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와 차이가 있는 개별 선택지에만 존재하는 요소에 더 집중한다.

전망 이론에서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중 보유 효과라는 것도 있다. 보유 효과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더 높은 (㉡)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효과가 발생하면 특정 대상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진다. 보유 효과에 의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것들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가급적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1)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나)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2.7점]

(2) 다음 ⓐ,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6.3점]

<탐구 활동>

국민이는 전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익과 손실에 따라 달라지는 확실성의 선호	=	이득과 관련되는 상황	+	손실과 관련되는 상황
(ⓐ)		(ⓑ)		(ⓒ)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에디슨의 축음기는 1877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중계 전신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신을 받고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이 발명품의 핵심 부품은 전신 부호를 기록하기 위해 종이에 밀랍을 먹여 만든 회전 원반이었다. 이 원반이 회전하면 그 위에서 철필이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밀랍 표면에 홈을 만들었고 그것을 뒤집어 돌리면 홈이 돌기로 바뀌고 철필이 돌기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 주게 되어 있었다. 에디슨은 이 장치에서 힌트를 얻어 원통의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에 저장된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를 생각해 내었다.

완성된 에디슨의 축음기는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화 장치는 짧은관으로,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 다른 쪽 끝은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 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함께 진동한다.

기록 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놋쇠로 만드는데 원통의 둥근 옆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한 가닥의 V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이 원통의 중앙을 관통하는 회전축은 수평으로 놓인 상태에서 양쪽 끝부분이 베어링에 의해 지탱된다. 원통의 V자 홈에는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이 근접해 있다. 회전축은 표면에 나선이 깎여져 있고 나선 베어링에 끼워져 있어서 회전축이 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돌리면 원통은 고정된 강철 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 주고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을 주석 박에 닿게 조정해 준 상태에서 수화 장치의 관에 말을 하면서 핸들을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 주면, 수화 장치의 강철 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자 홈을 따라서 주석 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 이때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홈이 주석 박에 새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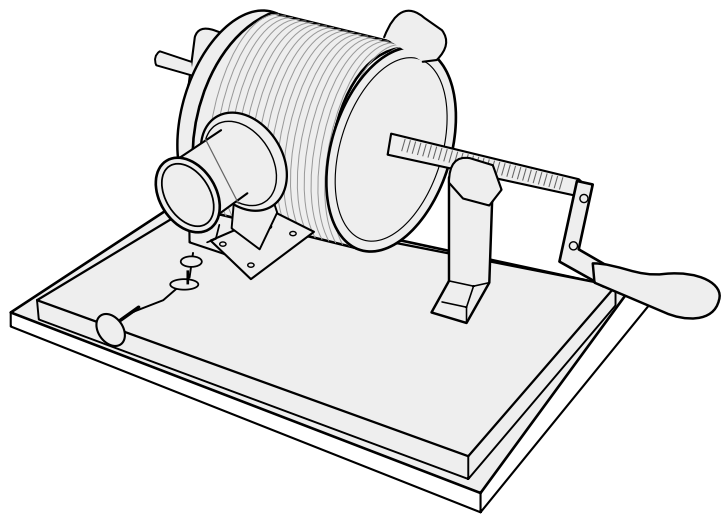
소리를 재현하는 재생 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었는데 넓은 쪽은 열려 있고 좁은 쪽은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 있다. 이 펼쳐진 종이 막의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용수철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 핀이 달려 있다. 만약 강철 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되어 종이 막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통을 되돌려서 녹음하기 전의 원래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재생 장치의 강철 핀의 끝이 주석 박에 만들어진 (㉠)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 한 후에 핸들을 돌리면 강철 핀이 새겨진 (㉠)을/를 따라 움직이면서 진동을 용수철을 통해 종이 막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소리가 원뿔형 나팔로부터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때 녹음할 때보다 핸들을 빨리 돌리면 소리가 고음으로 바뀌고, 느리게 돌리면 소리가 저음으로 바뀐다.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할 때 소리는 (㉡ _____)는 간단한 음향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었다. 에디슨이 변별적 자질을 갖는 모음과 자음이 주석 박에 강철 핀으로 독특한 홈을 남기고 그 홈을 움직여 강철 핀을 진동시켰을 때 원래의 소리를 변별력 있게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음의 감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던 음향학자들의 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운 좋은 성취였다.

(1)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2.1점]

(2) 윗글을 참고하여 ㉡에 들어갈 내용을 20자 내외로 쓰시오. [5.2점]

(3) 아래 <그림>은 에디슨의 축음기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 그려지지 않은 장치는 무엇인지 쓰시오. [2.2점]



〈그림〉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가)

브뤼노 라투르는 사회를 행위자인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고, 21세기는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살아 있는 무리의 사회가 파국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러브록이 창시한 유기체처럼 살아 있는 지구라는 가이아 개념을 변형하여 자신의 이론에 활용한다. 러브록은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가이아로 보았지만, 라투르는 가이아를 지구 표면에 있는 생명체들의 협소한 공생 공간으로 축소하고, 수많은 행위자가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 작용의 결과로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수많은 행위자는 가이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위의 물결을 일으킨다. 행위의 물결들은 서로 간섭하면서 뻗어 가며 공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다. 가이아에는 초월적 섭리도, 선험적 구조도, 특권적 중심도, 고정된 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투르는 이 가이아가 파국의 중심에 있다고 보았다. 폭풍, 해일,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폭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파국적 재난들로 가이아 자체가 파괴되지만 이러한 재난들을 일으키는 것도 가이아라는 것이다.

가이아가 중심에 있는 파국은 라투르에 의하면 일종의 전쟁 상태로, 그는 대립하는 두 존재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재할 때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파국은 타협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적대 관계로 맺어진 대상들 사이의 전쟁 상태라는 것이다. 가이아도 스스로와 전쟁 상태이며 인간 행위자들과 멸종해 가는 비인간 생명체들 사이에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인간 사회 내부도 파국에 대한 근본 태도와 입장이 상이한 두 그룹을 중심으로 전쟁이 진행 중이다. 한편에는 파국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발전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며 이해관계를 지속해 가려는 자들이 있다. 라투르는 이들을 '근대인들' 혹은 단순하게 '인간들'이라 부른다. 이 범주에는 여전히 발전을 꿈꾸는 자들, 인간 중심주의자들 등이 포함된다. 반대편에는 이러한 '인간들'과 전쟁을 벌이는 또 다른 인간 집단이 있다. 이들은 파국을 중대한 문제로 지각하고 있으며 대안을 찾아가는 자들이다. 라투르는 이들을 '지구생활자'라 부른다.

라투르에 따르면 21세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인간 행위자가 파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이 종말론적 현실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인식이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실천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한 실천의 주체는 파괴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존재들인 청년 세대, 난민들, 생태 재난의 피해자들 등이다.

(나)

바다!

(중략)

내가 만일 아직껏 바다를 보지 못하고 '바다'라는 말만 듣는다면 '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상상될까? 빛은 어떻고 넓기는 어떻고 보기는 어떻고, 무슨 소리가 날 것으로 상상이 될꼬? 모르긴 하지만 흥미 있는 상상일 것이다. 그리고 '바다'라는 어감에서 무한히 큰 것을 느낄 것은 퍽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생각도 된다.

한번 어느 자리에서 시인 지용은 말하기를 바다도 조선말 '바다'가 제일이라 하였다. '우미'니 '씨-'니 보다는 '바다'가 훨씬 큰 것, 넓은 것을 가리키는 맛이 나는데, 그 까닭은 '바'나 '다'가 모두 경탄음인 '아'이기 때문, 즉 '아아'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동감이다. '우미(うみ)'라거나 '씨-(Sea)'라면 바다 전체보다 바다에 뜬 섬 하나나 배 하나를 가리키는 말쯤밖에 안 들리나 '바다'라면 바다 전체뿐 아니라 바다를 덮은 하늘까지라도 총칭하는 말 같이 크고 둥글고 넓게 울리는 소리다.

바다여 너를 가장 훌륭한 소리로 부를 줄 아는 우리에게 마땅히 예(禮)가 있으라.

지구의(地球儀)를 놓고 보면 육지보다는 수면이 훨씬 더 많다. 지구(地球)가 아니라 수구(水球)라야 더 적절한 명칭일 것 같다. 사람들이 육지에 산다고 저희 생각만 해서 지구라 했나 보다. 사람이 어족이었다면 물론 수구였을 것이요, 육대주라는 것도 한낱 새나 울고 꽃이나 피었다 지는 무인절도(無人絶島)들이었을 것이다. 여기다 포대(砲臺)를 쌓는 자 누구였으랴. 오직 「별주부전」의 세계였을 것을.

*경탄음: 우러러 감탄하는 소리.
*우미(うみ): 바다라는 뜻의 일본어.
*무인절도(無人絶島):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섬.
*포대(砲臺):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비한 구축물.

– 이태준, 「바다」

(1) <보기>는 (가)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3.7점]

<보 기>

㈎의 '지구생활자'는 (ⓐ)을/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세계가 이미 종말을 맞이한 상태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인 주체이다.

(2) <보기>는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에 대응하는 말들을 (나)에서 찾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2어절의 말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5.8점]

<보 기>

바다, 수구, (ⓒ)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에서는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하여 이러한 생각을 뒤바꿔 놓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는 광학 이론을 제시하였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굴절되면서 파장별로 나뉘어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보인다. 특정 물체는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빛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킨다. 즉 물체가 가시광선의 일부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체를 볼 때 특정한 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괴테는 색이 빛 속에 존재한다는 뉴턴의 견해와 달리,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색채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달리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 내면의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괴테는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괴테는 색을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색은 (㉠)이고, 가장 주관적인 색은 (㉡)이며, 그 중간 단계의 색은 (㉢)이라고 하였다.

생리색은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색을 말하는데, 이는 괴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그는 선명한 유색(有色)*의 종이를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으로 갖다 대었을 때의 사례를 제시한다. 유색의 표면을 어느 정도 응시한 후 눈을 움직이지 않고 그 유색 종이를 치우면 바로 그 자리에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 생겨난다. 유색 종이가 황색이었다면 청자색이, 주황색이었다면 청색이, 자색이었다면 녹색이 나타난다. 이때 앞의 색을 유도색이라 하고 뒤의 색을 피유도색이라고 한다. 눈은 어둠이 제공되면 밝음을 요구하고, 반대로 밝음이 제공되면 어둠을 요구한다. 이처럼 눈은 한순간이라도 물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유도색과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피유도색이 바로 눈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생리색인 것이다.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생리색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물리색이다.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물리색에는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절색이다. 이것은 빛이나 암흑이 투명한 매질이나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태양의 빛은 그 자체로는 무색이지만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황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지거나 그 밀도가 높아지면 빛은 점차 주홍색을 띠다가 마침내 홍옥색으로 변한다. 이와 달리 무한한 공간의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청색으로 보인다.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질수록 더욱 밝고 옅어지게 되며, 반대로 흐린 매질이 투명해질수록 더욱 어둡고 짙어지게 된다. 괴테는 일출과 일몰 때 태양이 불그스레하게 보이고, 낮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화학색은 물리색보다 고정적이며,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색이다.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 달리 객관적인 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주로 산과 알칼리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황색과 주홍색은 산의 속성을 갖고 청색과 청적색은 알칼리의 속성을 갖는데, 강철을 불에 달구면 황색에서 적색을 거쳐 청색에 이르는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것은 강철이 산화, 강산화 과정을 거쳐 약산화, 탈산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괴테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상을 인간의 감각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는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울러 괴테는 적색은 정열과 흥분, 청색은 수축과 차분함 등 각각의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따라서 색은 감각적이고 도덕적이며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색을 위엄을 나타내는 색으로 보고, 녹색에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괴테는 뉴턴이 간과하였던 심리적,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른 색채 이해가 색채 현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고, 가시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 현상과 연결 지어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색: 빛깔이 있음.

(1) ㉠, ㉡, ㉢에 각각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4.5점]

(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의 표현 방식에 대해 40자 내외로 쓰시오. [5.5점]

< 보 기 >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u>시퍼러둥둥하니</u>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바람벽: 방이나 칸실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

*때글은: 때에 절어 검게 된.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가)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그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 낸 상(象)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 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이다.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은유를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 할 수 있다.

<A>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 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이성이 (㉡)(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는데,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나)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1)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3.9점]

(2)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2.4점]

(3) <A>의 '절대적 은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시오. [5.7점]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수학 영역

국민대

9. 직선 $x=2$가

$$f(x)=\log_2 x-1,\quad g(x)=\log_{\frac{1}{2}} x$$

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두 곡선 $y=f(x)$와 $y=g(x)$가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0점]

(1) 점 C의 좌표가 $(a,\ b)$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3.5점]

(2) 삼각형 ACB의 넓이가 $p+q\sqrt{2}$일 때, $p+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와 q는 유리수) [4.5점]

10. 구간 $0\le x<2\pi$에서 부등식 $6\cos^2 x+\sin x\le 5$를 만족하는 해 x는 $\alpha\le x\le\beta$ 또는 $\gamma\le x\le\delta$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단, $\beta<\gamma$) [12점]

(1) α의 값을 구하시오. [1.5점]

(2) β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3) $\gamma+\delta$의 값을 구하시오. [3.9점]

(4) $\cos(-\alpha+\beta+\gamma+\delta)$의 값을 구하시오. [4.6점]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 2026학년도 논술 기출 — 인문 해설

출처: 2027학년도 국민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출제 의도·근거·문항 해설·채점 기준·예시 답안)

[문제 1] 해설

출제 의도

김훈의 「회상」과 김소연의 「최초의 경험」을 통해 언어와 문학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표현을 파악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성취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성취기준 2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국어	이성영 외	천재	2018	230
교과서 내	국어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8	150

문항 해설

두 편의 수필을 통해 언어와 문학, 언어와 삶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핵심 내용과 글쓰기의 과정 및 문법 요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1) 두 편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의 사용과 세계의 인식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핵심어인 '정서'와 '해방'을 바탕으로 '사실'과 '강요(강압)'를 추론해 낸다.

(2)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를 문학적 언어에 적용한다.

(3) 언어와 삶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핵심 표현을 글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사실 – 1.6점, ⓑ:강요 – 1.6점('강압'도 정답으로 인정)	3.2점
(2)	'㉠은 격조사를 사용하였고, ㉡은 보조사를 사용하여 특별한 의미(정서)를 더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쓰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2점
(3)	'건성으로 해야 돼.'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4.1점

정답

(1) ⓐ:사실, ⓑ:강요(강압)
(2) ㉠은 격조사를 사용하였고, ㉡은 보조사를 사용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3) 건성으로 해야 돼.

[문제 2] 해설

출제 의도

정약용의 「수오재기」에 나타난 인문학적 사유를 이해하고,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를 사실적, 추론적으로 파악하며 글의 주제를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성취기준 1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성취기준 2	[12독서01-01]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20–22
교과서 내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16–18
교과서 외	수능특강 (문학)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263–264

문항 해설

(1) 제시된 <A>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정답 '천하 만물'을 찾아 쓴다.

(2) ㉡은 '나'를 잃지 않고 지킨 큰형님과 대비되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쓴 모습을 서술한 부분이다. 밑줄 친 ㉡과 <보기>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론하여 가장 적합한 단어인 '인정'을 찾아 쓴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천하 만물'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4.2점
(2)	'인정'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4.8점

정답

(1) 천하 만물
(2) 인정

[문제 3] 해설

출제 의도

연금에 대해 서술한 사회 분야의 글을 읽고 연금이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기초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나라의 기초 연금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 1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성취기준 2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외	수능특강 (독서)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117-118

문항 해설

연금의 세 종류와 기초 연금 제도의 취지 및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 수당형 연금의 장단점을 알고, 문맥을 통해 한국의 연금 제도가 최저 소득 보장형과 최저 보장 연금형을 절충한 형태의 것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시문에서 연금을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그리고 기초 연금의 세 종류로 나누고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과 '기업이나 개인' 차원의 사적 연금을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각각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최저 소득 보장형이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서술을 통해 이와 대비되는 사회 수당형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최저 소득 보장형'이고,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최저 보장 연금형'임을 해당 단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공적, 사적을 정확히 기재하면 각각 1.0점을 부여함	2.0점
(2)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예산이 많이 든다. (모든 국민을 지원하므로 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을 정확히 쓰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5점
(3)	정답을 정확히 기재하면 각각 1.5점을 부여함	3.0점

정답

(1) ㉠ 공적, ㉡ 사적

(2)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예산이 많이 든다. (모든 국민을 지원하므로 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이다.)

(3) ㉣: 최저 소득 보장형, ㉤: 최저 보장 연금형

[문제 4] 해설

출제 의도

전망 이론의 등장 배경 및 주요 개념에 대한 글과 합리적·윤리적 소비에 대한 글을 함께 읽고 현대 사회의 가치 있는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성취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성취기준 2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8	322
교과서 외	수능완성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215

문항 해설

전망 이론에 대한 글과 합리적·윤리적 소비에 대한 글을 읽고 현대 사회의 소비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1) 소비자들이 특정한 소비를 하며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황과, 자신이 소유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보유 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핵심어 '가치'를 추론할 수 있다.

(2) 전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반사 효과'와 '확실성의 효과', '손실 회피'의 정의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가치'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7점
(2)	반사 효과, 확실성의 효과, 손실 회피를 모두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각각 2.1점씩 부여 / '확실성의 효과' 대신 '위험 회피적인 결정', '손실 회피' 대신 '위험 선호적인 결정'을 쓰면 부분 점수 부여	6.3점

정답

(1) 가치

(2) ⓐ: 반사 효과, ⓑ: 확실성의 효과, ⓒ: 손실 회피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5] 해설

출제 의도

에디슨 축음기의 구조를 서술한 과학 분야의 글을 읽고 과학 발명품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외	수능특강 (독서)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213–214

문항 해설

복잡한 기구의 외양과 작동 원리를 묘사한 과학 분야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 'V자 모양의 홈이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다.' 등의 서술을 통해 '홈'을 추측한다.

(2) 에디슨 축음기가 소리가 진동이라는 음향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서술이 제시문에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3) 에디슨 축음기가 수화 장치, 기록 장치, 재생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서술에 이어 수화 장치에 대한 서술이 둘째 단락에, 기록 장치에 대한 서술이 셋째 단락에, 재생 장치에 대한 서술이 넷째 단락에 이어지고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홈'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1점
(2)	'소리는 진동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문장이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음	5.2점
(3)	'재생 장치'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2점

정답

(1) 홈
(2) 소리는 진동에서 비롯된다. (소리는 진동이다.)
(3) 재생 장치

[문제 6] 해설

출제 의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학 작품에 추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문학
성취기준 1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296
교과서 외	수능특강 (독서)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262–263

문항 해설

(1) 둘째 단락에서 지구생활자는 "파국을 중대한 문제로 지각하고 있으며 대안을 찾아가는 자들"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 제시문 속 화자는 세상을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고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제안한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대"는 인간 중심적인 행위의 결과이고, '별주부전의 세계'는 그러한 행위가 억압한 대상이다. 라투르의 가이아 개념이 수많은 행위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위의 물결을 일으키는 공생의 네트워크이자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로 설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주부전의 세계'는 가이아와 연결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파국'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전쟁 상태'는 부분 점수	3.7점
(2)	'「별주부전」의 세계'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5.8점

정답

(1) 파국
(2) 「별주부전」의 세계 (홑낫표를 생략한 경우도 정답으로 처리: '별주부전의 세계')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7] 해설

출제 의도

괴테의 색채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문학 작품에 추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문학
성취기준 1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문학	조정래 외	해냄	2018	33
교과서 외	수능특강 (독서)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281-282

문항 해설

(1) 넷째 단락에 물리색은 생리색보다 객관적이라는 서술이 있고, 다섯째 단락에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 다르게 객관적인 색이라는 서술이 있다. 이 같은 서술들을 참고하여 세 가지 색채가 지닌 객관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2) <보기>의 시에서 색채는 감각과 연결되어 있기에 서양의 전통적 색채론이나 뉴턴의 광학 이론이 아니라 괴테의 색채론을 참고하여 답해야 한다. 뉴턴과 다르게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심리적이고 미학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화학색', '생리색', '물리색'을 순서대로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각각의 항목별로 부분 점수 1.5점을 부여할 수 있음	4.5점
(2)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에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장이면 정답, 시에 언급된 표현 방식에("시퍼러둥둥하니") 주목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를 해석한 경우 부분 점수 부여,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음	5.5점

정답

(1) ㉠: 화학색, ㉡: 생리색, ㉢: 물리색

(2)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에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문제 8] 해설

출제 의도

은유학의 창시자인 블루멘베르크의 '절대적 은유' 개념을 활용하여 월명사의 향가 「제망매가」를 이해함으로써, 문학의 심미적, 정서적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2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19	184
교과서 외	수능특강 (독서)	EBS교육방송 편집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60-61

문항 해설

블루멘베르크의 '절대적 은유' 개념을 향가 「제망매가」에 적용하여 문학의 심미적, 정서적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1)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라는 표현과 유사한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을 찾아낸다. 종래 철학의 은유에 대한 두 번째 해석과 관련되므로 '군더더기'나 '장식'은 오답이다.

(2)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은유와 대비되는 용어로 '개념'을 찾아낼 수 있음.

(3) 인간이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인식을 절대적 은유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세계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블루멘베르크의 '절대적 은유' 개념을 「제망매가」에 적용하여 이 작품이 삶의 근원적인 허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절대적 은유를 보여주는 작품임을 이해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필요악'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3.9점
(2)	'개념'을 정확히 기재하면 정답	2.4점
(3)	'삶의 근원적인 허무를 은유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라는 답안의 내용을 서술하면 정답,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감점하거나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음	5.7점

정답

(1) 필요악

(2) 개념

(3) 삶의 근원적인 허무를 은유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죽음이 주는 공포와 슬픔을 은유를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상실감을 승화시킨다.)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9] 해설

출제 의도

로그함수를 이해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며, 그 성질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성취기준 1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2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수학 I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5	40,43
교과서 내	수학 I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5	53

문항 해설

(1) $f(x)=\log_2 x-1$, $g(x)=\log_{\frac{1}{2}} x$에서 $f(2)=\log_2 2-1=0$이므로 $A(2,\,0)$

$g(2)=-\log_2 2=-1$, $B(2,\,-1)$이다.

두 곡선의 교점 C는 $\log_2 x-1=\log_{\frac{1}{2}} x=-\log_2 x$

$\log_2 x+\log_2 x=1,\ 2\log_2 x=1,\ 2\log_2 x=\log_2 2$이고 진수 $x>0$이므로 $x=\sqrt{2}$

$f(\sqrt{2})=\log_2\sqrt{2}-1=\frac{1}{2}-1=-\frac{1}{2}$

점 C는 $\left(\sqrt{2},\,-\frac{1}{2}\right)$, 그러므로 $a\times b=\sqrt{2}\times\left(-\frac{1}{2}\right)=-\frac{\sqrt{2}}{2}$

(2) 선분 $\overline{AB}$ 길이는 1, 삼각형의 높이는 $h=2-\sqrt{2}$이다.

그러므로, 삼각형 ACB의 넓이 $S=\frac{1}{2}\cdot 1\cdot(2-\sqrt{2})=\frac{(2-\sqrt{2})}{2}=1-\frac{1}{2}\sqrt{2}=p+q\sqrt{2}$

$p+q=1+\left(-\frac{1}{2}\right)=\frac{1}{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3.5점	3.5점
(2)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4.5점	4.5점

정답

(1) $-\frac{\sqrt{2}}{2}$ ($-\frac{1}{\sqrt{2}}$ 도 정답)

(2) $\frac{1}{2}$ (0.5 도 정답)

[문제 10] 해설

출제 의도

주어진 구간 안에서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부등식을 풀 수 있다.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항목	내용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성취기준 1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교과서 내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25	71,76
교과서 내	수학 I	홍성복 외	지학사	2025	75,81

문항 해설

(1) 구간 $0\le x<2\pi$에서

준식 $6\cos^2 x+\sin x-5\le 0$, $6(1-\sin^2 x)+\sin x-5\le 0$

$6\sin^2 x-\sin x-1=(3\sin x+1)(2\sin x-1)\ge 0$이다.

그러므로, $\sin x\le -\frac{1}{3}$ 또는 $\sin x\ge\frac{1}{2}$이다. $0<\alpha<\frac{\pi}{2}$이므로 $\sin x=\frac{1}{2}$, $\alpha=\frac{\pi}{6}$이다.

(2) $\sin\alpha=\sin\beta=\frac{1}{2}$, $\alpha\le\beta$이므로, $\beta=\frac{5\pi}{6}$이다.

(3) $\frac{\gamma+\delta}{2}=\frac{3\pi}{2}$이고 $\gamma+\delta=3\pi$이다.

(4) $\cos(-\alpha+\beta+\gamma+\delta)=\cos\left(-\frac{\pi}{6}+\frac{5\pi}{6}+3\pi\right)=\cos\left(2\pi+\left(\pi+\frac{2\pi}{3}\right)\right)=\cos\left(\pi+\frac{2\pi}{3}\right)=\frac{1}{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1.5점	1.5점
(2)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2점	2.0점
(3)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3.9점	3.9점
(4)	정답을 정확히 기입하면 4.6점	4.6점

정답

(1) $\frac{\pi}{6}$

(2) $\frac{5\pi}{6}$

(3) 3π

(4) $\frac{1}{2}$ (0.5 도 정답)

문제 저작권: 국민대학교 · 조판: SN독학기숙학원 (학습용)
정답 및 해설은 SNarGPT(snarGPT.a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